메시지 8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심

성경: 민 7:89, 출 24:15-18, 25:8, 17-22, 시 80:1, 99:1, 히 1:3, 9:4-5, 10:19, 4:12, 14, 16, 고후 3:18, 4:4, 6, 계 21:2-3, 10-11, 16, 22-23, 22:1-5

Ⅰ. 주님은 사람이 그의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 출 33:11, 민 12:7-8.

A. 하나님과 모세는 위대한 사업에서 동일한 일에 참여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 동반자이자 동료이자 동업자였다.

B.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 — 출 33:14.

C.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빛나는 영광이 있는 지성소 안에 있었다.

1. 호렙산과 관련해서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거리에 있었다.
   a.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은 산기슭에 멀리 떨어져 서서 떨고 있었다 — 출 20:18.
   b.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칠십 명의 장로들은 산 위에 멀찍이 서서 경배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 출 24:1, 9.
   c.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그분을 주입받으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대한 이상을 보고 있었다 — 출 24:13, 16상, 25:1, 8-9.
2. 이 세 장소는 성막의 세 부분인 바깥뜰, 성소, 지성소와 일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도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3.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에게서 계명을 받은 것에 관한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난 원칙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말하는 민수기 7장 89절에 나타난 원칙과 동일하다.

Ⅱ.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려고 회막에 들어갔을 때, 증거궤 위의 속죄 덮개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 민 7:89, 출 25:17-22.

메시지 8 (계속)

A. 속죄 덮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과 만나시고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출 25:22, 민 7:89.

B. 속죄 덮개 위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겔 10:18)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불린다(히 9:5). 따라서 속죄 덮개 위의 그룹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요 1:14).

1. 두 그룹은 속죄 덮개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 덮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비추어 나오고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출 25:19, 비교 요 1:14, 고후 4:4, 6.
   a.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증거이다 — 출 37:7-8.
   b. 숫자 2는 증거의 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
   c.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증거이다.
2. 그룹들과 속죄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빛남이 신성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 출 25:17-18, 히 1:3.

C.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그룹들 사이에서 보좌에 앉으셨고, 거기에서부터 빛을 비추어 내셨다 — 시 80:1, 99:1, 삼상 4:4, 삼하 6:2.

D. 속죄 덮개 위에서,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출 25:22.

1. 하나님께서 속죄 덮개 위에서, 그리고 그룹들 사이에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증거이신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영광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 고후 3:8-11, 18.
2.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민 7:89, 출 25:22, 시 80:1, 3, 99:1.
3. 하나님은 영광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빛남이다 — 고후 4:4, 6.

메시지 8 (계속)

4. 그룹들이 있는 속죄 덮개, 곧 화해 장소는 다름 아닌 우리의 사랑스러우신 주 예수님 자신이다 — 롬 3:25.
   a.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
   b. 실지로, 이렇게 빛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히 1:3.
5.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진 속죄 덮개는, 인성 안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신성 안에서 빛나시는 그리스도(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타락한 죄인들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심을 묘사해 준다 — 레 16:14-15, 29-30.
   a. 속죄 덮개 위의 그룹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으로 빛나시는 것을 상징하고, 속죄 덮개 위에 뿌려진 피는 구속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인성을 상징한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빛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b. 속죄 덮개 위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알 수 있으며 그분에게서 이상과 계시와 지시를 받을 수 있다.
   c.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주입해 주신다 — 고후 3:18.

Ⅲ.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의 속죄 덮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와 동일하다.

A.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 히 10:19.
   1.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 히 4:16.
   2. 우리가 그러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는다.
   3.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는다.

B. 오늘날 지성소는 주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에 있지만(히 9:12, 24),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을지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메시지 8 (계속)

1. 그 비결은 우리의 영이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신다 — 딤후 4:22.
2. 하늘에 속한 사다리(창 28:12, 요 1:51)이신 그분은 우리 영을 하늘과 연결하시고, 하늘을 우리 영 안으로 가져오신다.
3.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C.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휘장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늘들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 — 히 4:14, 16, 6:19-20.

1. 의심할 것 없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에 대해서는 권위의 보좌이지만,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위의 속죄 덮개로 상징되었다 — 출 25:17, 롬 3:25, 레 16:15, 히 9:3, 5, 12.
2. 언약궤의 덮개, 곧 속죄 덮개는 은혜의 보좌를 상징한다. 속죄 덮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좌이다 — 민 7:89, 출 25:17-22.
   a.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과 친밀히 대화하신다 — 출 25:21-22, 민 7:89.
   b.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한다 — 히 4:16, 10:19.
   c.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며,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표정을 보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
   d.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는 보좌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3. 속죄 덮개의 실재인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일치하게 된다 — 히 4:12, 16, 7:25-26, 8:1, 13:20-21.

D.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

르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다 — 고후 3:18, 4:4, 6.

E.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성 전체는 등이신 어린양 안에서 비추는 빛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지성소일 것이며,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어린양과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비춤 아래 살며,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 계 21:2-3, 10-11, 16, 22-23, 22:1-5.